

'리뷰네컷'서 유행 직접 체험하고 솔직 리뷰 팡팡

(JTBC4 예능 프로그램)

1997년 1집 앨범 '머리하는 날'로 데뷔한 베이비복스는 초기에는 저조한 음반 판매고 등 부진을 겪었으나 1999년 멤버 재편 후 '킬리' '셋 업' '배신' '인형' '우연' '아야야' 등의 여러 곡을 통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탄탄한 가창력과 칼각이 살아있는 춤을 인정받아 1998년 SBS 가요대전 신인상 및 인기상, 1999년 제10회 서울가요대상 최고 가수상, 2002년 MBC 골든디스크 인기상 등을 받아 인기를 증명했다.

2004년 심은진을 시작으로 2006년 멤버 전원이 탈퇴하면서 팀이 잠정 해체됐고 각 멤버는 2006년부터 개인 활동을 이어갔다.

윤은혜는 1999년 16세 때 베이비복스 막내로 합류해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2002년 영화 '긴급조치 19호'와 2003년 SBS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 카메오로 출연으로 배우로서 얼굴을 비쳤다.

2004년 강호동이 진행했던 예능 프로그램



램 'X맨을 찾아라'에서 매력을 뽐내면서 인기가 더 상승했다.

베이비복스 해체 후 2006년 방송된 MBC 드라마 '궁'의 주연으로 발탁돼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극 중 고등학생 명랑 소녀 신채경 역을 맡았는데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원작인 웹툰 속 캐릭터와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이를 연기력으로 증명하며 드라마의 성공에 일조했고 그해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았다.

같은 해 농촌 로맨스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에서도 출중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KBS 연기대상 여자신인상을 비롯해 함께 출연했던 오만석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2007년 방송된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은 윤은혜의 대표작이자 인생 드라마다. 남자 행세를 하는 24세의 여주인공 고은찬 역을 맡아 MBC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인기를 바탕으로 2010년 KBS2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2011년 SBS 드라마 '내게 거짓말을 해봐', 2011년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2012년 MBC 드라마 '보고싶다', 2013년 KBS2 드라마 '미래의 선택' 등 꾸준히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갔다.

2009년 '아가씨를 부탁해'로 KBS 연기대

상 여자 인기상-베스트 커플상, 2012년 '보고싶다'로 MBC 연기대상 올해의 한류스타상-인기상을 받아 인기를 드러냈다.

이후 활동이 뜸했다가 2018년 드라마 '열린채널'로 5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와 반가움을 줬다.

한편 윤은혜가 가수 겸 배우 김윤지, 인플루언서 김지영, 크리에이터 시야지우와 함께 JTBC4 예능 프로그램 '리뷰네컷'에 MC로 나섰다.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자정마다 방송하는 '리뷰네컷'은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는 시대에 '입소문템' '품질대란템' '가성비템' 등을 직접 체험한 솔직한 리뷰를 풀어내는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편 윤은혜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R01파트(사진) 한 호실을 2013년 3월 10억 8000만 원에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 규모는 공급면적 216.64㎡(약 65.53평)·전용면적 198.93㎡(약 60.17평)로



윤은혜

한텐먼트·가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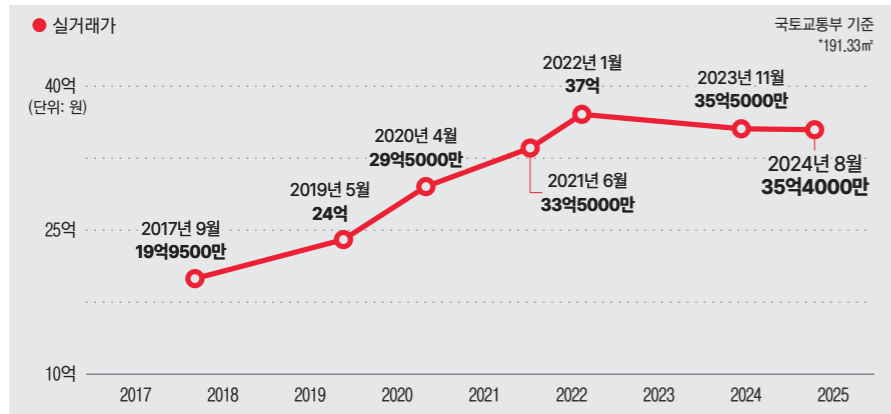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7월 매매된 25억 원이다.

2004년 완공된 단지는 1개동-18가구지하 2층-지상 6층으로 구성됐다. 철저한 관리로 건물 내·외관 상태가 훌륭하고 인근 고급 주거단지 밀집으로 보안이 철저해 생활 보호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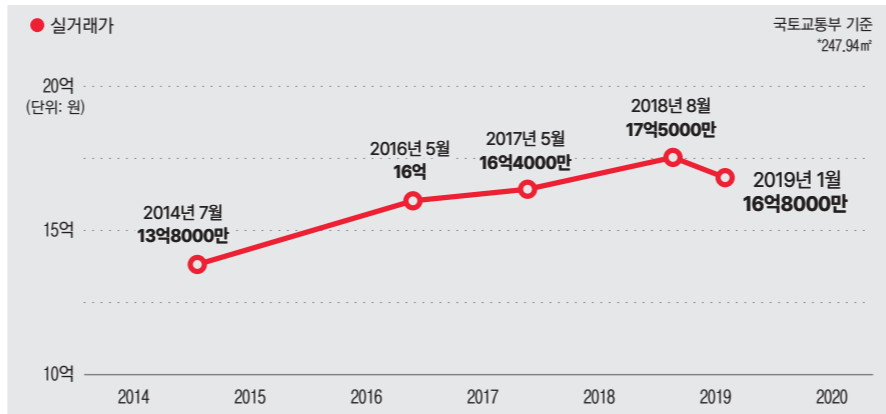
동호대교-한남대교-강변북로로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과 강북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지하철 경의중앙선-3호선 옥수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근처에 매봉산이 있어 언제든지 마당처럼 드나들며 산책하기 좋다.

이동원 기자 dwlee@skyl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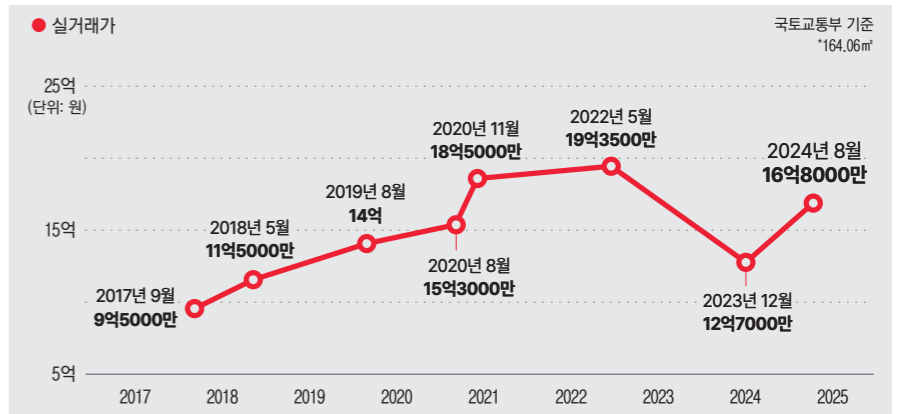
한남하이츠



레미테지



옥수극동



김항경

전)외교통상부 차관



상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이를 끝으로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마쳤다. 강남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한국캐나다협회 4대 회장,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등으로 다른 일을 이어갔다.



김항경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서울고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고시가 아닌 외무사무관급 특채로 외무부에 발을 들였다. 1970년 아주국 사무관, 외무부 동남아과장을 거쳐 1981년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1987~1989년 외무부 공보관-영사교민국장 등을 맡아 영사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으며 1990년 주 미안마 대사, 1992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맡았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1995년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1996년 주캐나다 대사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주 뉴욕 총영사, 2001년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거쳐 외교통

정조국

전)축구선수



정조국은 대신고 시절 한 시즌 5개 대회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실력 있는 스트라이커로 이름 날렸다. 2002년 거스 히딩크 국가대표팀 감독의 눈에 띄어 유일한 고교생 신분으로 월드컵 무대를 경험했다. 2003년 안양LG치타스(현 FC서울)에 입단하면서 프로에 진출해 첫 해 32경기 12골 2도움으로 신인왕에 올랐다. 8시즌 동안 209경기, 63골, 19도움을 기록했다. 2010년 팀이 10년 만의 K리그 정상을 차지한 후 이듬해 프랑스 리그앙 AJ오세르로 이적했다. 반 시즌을 보낸 후 같은 해 9월 남시로 임대됐다. 하지만 원 소속팀인 AJ오세르가 1부에서 2부 리그로 강등



정학영

헨마이크로인피티 대표이사 사장



정학영 마이크로인피티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산업대 제3공학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항법 기술에 매료돼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2001년 설립한 마이크로인피티는 우주항공·선박·유도 무기 분야에서 사용되는 항법 유도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항법 전문회사다. 중국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동작 기반 게임 입력장치 나비는 회사의 독자적인 항법 기술을 적용해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관성 항법 기술을 활용한 동작 기반 입력



기기로 주목받았다. 그는 2005년-2007년 'The Marquis Who's Who Publications Board,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06년 대한민국 U-로봇대상 부품 부문 파이낸셜뉴스 사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